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향후 양계경기 어려움 지속 예상 산란계 마리수 5,970만수로 사상 최고 기록

닭 마리수가 시가 종료된 이후에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양계산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현재 육계 및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시종료 및 여름철 소비증가 기대로 전분기보다 각각 16.2%, 3.2% 증가한 7,785만수, 5,972만수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산란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가 증가한 5,972만수를 보이면서 사상 초유의 마리수를 보이면서 향후 경기불황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란계는 지난 2006년말 5,700만수로 초유의 사육수수를 보인 후 금년 3월 5,780만수에 이어 또 다시 사육수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6월까지 입식된 산란종계의 경우도 32만수로 지난해 입식된 전체물량 44만9천수 대비 71.3%에 해당하는 물량이 이미 상반기에 입식됨에 따라 향후 경기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육계의 경우는 마리수가 전분기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수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7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감소한 7,785만수를 보이면서 시발생과 무더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 산지가격도 초복을 전후하여 kg당 2,200원을 넘으면서 수급의 불균형을 보여 오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2007년 원종계 수수가 근본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불황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원종 4사 및 농림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육계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원종사들은 원종계를 줄여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쿼터제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무등록 종계장에는 10월부터 종계를 공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향후 수급 물량조절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산란업계에서도 수수감축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농가에 알리고 사육중인 노계군의 조기도태를 실시하여 계란 생산량 감축을 시행하고, 적정 사육수수 입식, 강제환우 자제를 요청하는 등 불황타개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향후 불 보듯 뻔한 상황을 간과하여 골이 깊은 불황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병원성 시 경제적 피해 6,324억 손실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 감안시 실제 피해 더 클 듯

지난 4월부터 42일간 국내를 강타한 고병원성 시의 경제적 피해가 지난 6월 27일 현재 6,324억원인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였다. 지난 2003/04년과 2006/07년 두 차례 발생했을 때 보다 발생기간이 훨씬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손실을 가져왔던 것은 유래 없이 많은 발생건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지난 2003/04년도에는 10개 시·군에서 19건(닭 10건, 오리 9건), 2006/07년도에는 5개 시·군에서 7건(닭 4건, 오리 2건, 메추리 1건)이 발생한 반면 금년에는 10개 시·군에서 33건(닭 20건, 오리 6건, 혼합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에는 전문 사육농장 뿐만 아니라 가든 식당이나 재래시장 등을 통해 질병이 확산되면서 단시간 내에 전국적으로 시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번 시발생으로 살처분과 매몰 등의 조치를 보면 950농가에 840만수, 정부 구매물량 1,628만수 등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번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피해규모 중 생산감소에 의한 1차 피해액은 656억원(살처분보상금)이며, 장기적인 입식지연과 출하의 어려움 등에 따른 2차 피해액은 생계·소득안정자금 28억원, 수매자금 753억원, 일반지역에 대한 입식 및 경영자금 1,220억원, 종계도태·1종란폐기보상금 62억원 등 총 20,6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1·2차 피해액을 합산하면 생산단계의 직접피해액은 총 2,71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단계의 간접 피해액은 사료업체의 생산 및 감소분만 등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유통단계에서의 피해액은 육가공공장-유통단계에서는 제품의 가치하락, 보관비 등 산업피해를 고려해 볼 때 약 58억원, 외식업체의 피해액은 4~5월 닭고기 오리고기 매출 감소액 2,715억원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피해 427억원으로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의 손실액은 총 3,14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고병원성 시발생으로 인해 가공산업 전체의 경제적 피해액은 정부의 방역 및 살처분 활동에 소요된 비용과 특별교부세 375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324억2천만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시로 인한 피해액은 2003/04년과 2006/07년 살처분보상금 등의 방역비용으로 사용된 1,126억원, 582억원에 비해 엄청난 손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 고병원성 시발생은 가공산물 생산능가 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따라서 재발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상시방역체제 가동 등 예방 활동을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절기 농장관리 철저

혹서, 수해에 대한 대비로 생산성 향상

전국적으로 하절기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금년에는 과거에 비해 장마기간 동안 적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식수를 구하기 힘든 곳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한 반도를 스쳐간 태풍 '갈매기'가 신호탄이 되어 앞으로 여름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사양, 질병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여름철은 혹서, 장마, 수해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항상 직면하게 된다. 시가 종식되면서 농가의 방역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일이다.

혹서기에는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 닭들이 집단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계사 내 온도가 가장 높고 올라가는 3시 전후에는 지붕에 물을 뿌리거나 시원한 그늘막을 설치해 주는 등 혹서에 대비해야 한다. 신선한 물을 수시로 공급하고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는 경우 필요 시 질병 예방차원에서 비타민제, 대사촉진제 및 칼슘·소금 등 미량 광물질 급여하는 것도 사양관리의 한 방법이라 하겠다.

여름철이더라도 혹서 폐사체가 다량 발생할 경우 단순히 열사에 의한 폐사로 치부하기 보다는 시가 아닌지 의심해 보고 가까운 시·도 방역관에게 신고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시는 겨울철이 아닌, 20℃를 훨씬 넘는 기간인 4, 5월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기를 맞이하여 수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금년 들어 게릴라성 폭우가 자주 내리는가 하면 8~9월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만 해도 2~3개가 지나간다.

폭우가 쏟아지거나 태풍이 지나가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지대가 낮은 곳은 침수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사전에 배수구 점검을 통해 물이 넘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수해에 따른 다양한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비타민 C 등 면역증강제 및 항스트레스제를 사전에 투여하는 것도 챙겨두어야 할 일이다. 뉴캐슬병,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후두기관염, 만성복합 호흡기 질병 등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수해 발생 시 전염성 질병예방을 위해 음수소독 및 주위환경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콕시듐증과 같은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고 계사바닥을 건조시키고 톱밥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급하지 않은 백신이나 사료 교체 등은 당분간 피하고, 계사 환기량을 증가시켜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관리가 최선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양계**